

연말 드라마 '장르전쟁' 형사vs오피스vs로맨스



형사물 옆에 오피스물 그 옆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지금까지 필로 로맨스다. 최근 드라마 트렌드는 세

월화극, 형사물과 오피스물 양강구도 수목극, 법정드라마 사이 둔 판타지물

히 강세를 보이며 월화극을 지키고 있고 오피스물 두 편이 출격했다. 이와 함께 로맨스 드라마도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시선을 끈다.

손가락 세개로 압축이 가능한 '최신 드라마 트렌드'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장르의 총집합이라 할 정도로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월화극은 형사물과 오피스물 양강구도이며 수목극은 법정드라마 사이 둔 판타지물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첫 방송을 내보낸 MBC '투깝스'와 SBS '이문의 일승'. 그리고 지난 4일 KBS2 '저글러스 : 비서들'과 tvN '박영애는 영애씨 시즌16'이 시작됐다. 그리고 '판타지'를 전면에 내세운 드라마 두 편이 6일 동시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KBS2 '흑기사'와 MBC '로봇이 아니야'가 그것이다. 시청률 파이를 나눠 갖는 전체 드라마 대결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장르의 드라마들이 동시에 출격하며 오는 이른바 '장르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속에서 어떤 드라마가 장르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형사물 : 투깝스vs이문의 일승

'투깝스'와 '이문의 일승'은 모두 형사물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두 작품 모두 '진짜 형사가 아닌' 사람이 형사가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는 것. '투깝

'스'는 사기꾼 공수창(김선호)의 영혼이 진짜 형사 차동탁(조정석)의 몸으로 들어가 수사를 벌이는 빙의 물이며 '이문의 일승'은 살인 누명을 쓴 탈옥수가 진짜 형사가 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신의 운명을 둘러싼 열쇠를 찾기 위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도 두 드라마의 공통점. 이 덕분에 심장 떨리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스릴러' 요소가 두 드라마 속에 담겼고 이를 적절히 풀어 가며 흥미로운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두 드라마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판타지'의 존재 유무. '형사물'이라는 공통 장르로 시작했지만 '투깝스'에는 '빙의'라는 요소가 추가됐다. 반면 '이문의 일승'에는 판타지적 요소는 들어있지 않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드라마에 투영하고 있는 것. 현실과 드라마를 적절히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도 재미를 찾는 중이다. 지난 주 첫 대결에서는 '이문의 일승'이 먼저 웃었지만 이번엔 '투깝스'가 웃은 상황. 막상막하 대결 속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 오피스물 : 저글러스vs박영애

'공감'과 '현실감'을 찾는 시청자들에게 가장 환영 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피스 드라마. 현실에 지친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한방과 사이 다를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르가 오피스물이기 때문. 일명 '우리 부장', '우리 선임을 드라마' 속 등장인물에 투영해 그들을 마음껏 괴롭히는 주인공을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다. 이 덕분에 오피스물은 웬만큼 실재가 없다는 '필승 장르'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박영애'와 '오피스물' 명가로 불리는 KBS의 '저글러스'가 맞대결을 펼치며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16번째 시즌을 맞은 '박영애'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이영애의 결혼이 최대 관심사가 됐던 '박영애'지만, 이번에는 남편찾기와 삼각관계를 멈춘 채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된 것. 오피스물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감대가 또다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저글러스'는 지금까지 화면 한쪽에 걸려 등장하던 비서들을 전면에 끌어오는 시도를 했다. 이 때문에 상사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꾸준히 발생하며 직장인 공감을 얻을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공감과 코믹을 적절하게 섞어낸 두 오피스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사이대를 수월하는 전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로맨스물 : 흑기사vs로봇이 아니야

이제 로맨스물의 등장만을 앞두고 있다. 6일 첫방송 되는 드라마 두 편이 모두 로맨스 드라마로 하나는 로봇을 연기하는 사람과의 사랑을 다뤘고 다른 하나는 200년을 이

어온 인연과 운명처럼 풀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두 드라마 모두 로맨스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MBC '로봇이 아니야'는 인간과의 사랑이 어려운 남자와 로봇을 연기하는 여자의 사랑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덕분에 유승호의 최초 로맨스 연기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로봇을 연기하는 채수빈의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을 예정. 이미 '보그'에서 로봇과의 사랑이야기를 다뤘지만, '로봇이 아니야'에서는 조금 더 드라마적인 요소를 많이 섞는다.

'흑기사'는 200년을 걸쳐온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미지의 힘이 행운과 징벌을 관장하며 이 속에서 운명으로 엮인 인연들이 다시 만나게되는 과정을 담는다. '어딘가에 신이 있어' 이렇듯 '미지의' 발상을 드라마로 옮긴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처럼 찾아오는 시도를 했다. 미지의 대가를 치르는 남자의 이야기나,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는 이야기 등을 판타지 속에서 표현한다는 의도다. 주인공은 김태원과 신세경이며 서지혜는 200년을 불로불사해온 미지의 존재로 등장해 판타지적인 요소를 하나 더 더한다.

현재 드라마판은 '장르의 전쟁'이라는 말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 동시에 이토록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이를 지켜보며 '골라' 볼 수 있다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행운이었던 행운이다. 연말을 가득채운 장르극의 흥수 속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훑린 드라마는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올해 마지막 4DX 대작



오는 14일 개봉하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올해 마지막 4DX 영화로 연말을 장식한다. 역대 전세계 4DX 흥행 1위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뿐 아니라,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까지 4DX 역대 글로벌 흥행 TOP10을 기록 중인 '스타워즈' 시리즈는 4DX 필라

영화로 글로벌 관객들에게 인정받아 왔다. 2017년 4DX의 글로벌 51개국 진출달성과 함께 12월 전세계 51개국 개봉이 확정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기록을 넘어 국내 및 전세계 흥행 역전을 펼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4DX 개봉 당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99.5%), 크로아티아(97%), 체코(99%), 남아프리카(99.8%), 터키(92%), 필리핀(100%) 등 전석 매진에 가까운 기록을 세웠을 뿐 아니라 글로벌 인기몰이를 이어가며, 역대 4DX 최고 흥행작 1위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는 '전국신화', '거대한 문화현상'으로

비유되는 북미의 '스타워즈 신드롬'에 걸맞게 이미 올해의 북미 최대 오프닝 기록 달성이 예측되는 최대 기대작이다.

비밀의 열쇠를 쥔 히로인 레이를 필두로 핀, 포 등 새로운 세대가 중심이 되어 거대한 운명을 결정지을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결을 그리는 내용으로 영화의 재미를 극대화 해줄 4DX의 섬광, 반개 효과, 진동 효과의 결합도 기대 요소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4DX는 광선 검 전투 장면이 모션 체어 진동과 섬광, 에어샷 효과를 더해 관객들이 실제로 대결 사이에 있는 듯 높은 현장감을 선사한다. 또한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장면에서는 4DX가 보유한 20가지 이상의 풍부한 환경효과를 효과적으로 믹스해, 상상 속 우주 공간을 환상적으로 구현해낸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4DX는 오는 14일 전국 CGV 4DX 30개관, CGV 4DX with ScreenX 1개관 (CGV용산아이파크몰) 개봉을 비롯,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 미국, 멕시코,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카타르 등 전세계 51개국 4DX관에서도 순차 개봉한다.

자이언티X이문세 '눈', 15시간 만에 차트 '올킬'



'음원강패'라는 별명 값을 톡톡히 하는 가수다. 자이언티가 이번에도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신배 가수 이문세도 힘을 제대로 보였고 추위진 날씨도 한 몫 단단히 했다.

자이언티의 '눈 (Feat. 이문세)'은 5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엠넷뮤직, 빅스뮤직, 소리바다, 올레뮤직, 몽키3까지 국내 전 온라인 음원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올킬'을 달성했다. 지난 4일 오후 6시 공개

이 주는 느낌을 제대로 풀어내려서 더욱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평.

자이언티는 앞서 쇼케이스에서 "트렌디한 곡이 아니다"며 "음원 유통시에 곡을 등록하는데 장르가 제즈라 가요 장르로 등록할 수 없다더라. 많은 분이 이 곡을 좋아하실지 모르는 상황에 부담을 떨쳐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격정스러운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손날' 같은 곡을 만들고 싶었다. 않은 옷 입어서 도 될 수 있는 곡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현재 실시간차트에는 나열의 기억의 빈자리, 민서의 좋아 등 발라드 감성의 곡들이 사랑 받고 있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음력 10월 19일)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 ▶ **황소** 36년생 행운있는 날이다 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2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우리수는 금물이다. 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 ▶ **사슴** 37년생 행운이 온다. 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학**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0년생 산행을 삼가라.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 ▶ **사슴** 39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 51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3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5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87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 ▶ **황소** 40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52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64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76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8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 **황학** 41년생 계약은 금물이다. 53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5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7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9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 ▶ **황학** 42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9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 ▶ **황학** 43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 55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7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 79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 91년생 꿈을 잡지마라.

- ▶ **황학**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4년생 믿음 아래 덕을 받는다. 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 ▶ **황학** 33년생 행운 맛을 준비를 하라. 45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57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69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81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이 이룬다.
- ▶ **황학** 34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46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58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0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2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 ▶ **황학** 35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 47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59년생 문서 계약문이 있다. 71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 83년생 꿈을 잡지마라.